

명저산책

Review



구스타보 구티에레스의 『해방신학』¹⁾

조영현

1. 지나간 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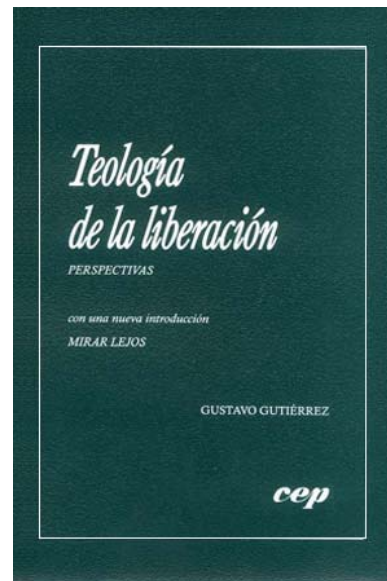
해방신학의 물결이 가장 강렬했던 브라질 상파울루 교구에 새로 부임한 오질루 페두루 세레르 대주교는 해방신학이 “지나간 유행”이 되었다고 선언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80년대 후반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련 등 공산권의 몰락,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의 선거 패배였다. 게다가 교황청의 압력으로 진보 노선의 신학대학교와 신학교가 문을 닫고, 진보 주교가 은퇴한 교구에 보수 주교가 임명된 것도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서방의 주요 언론은 레오나르도 보프와 혼소브리노 등 주요 해방신학자가 교황청 신앙교리성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해방신학을 억압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뒤를 이어 보수적 성향의 라칭거 추기경이 교황 베네딕도 16세로 선출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해방신학이 설자리를 잃었다고 논평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해방신학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라틴아메리카의 현실

1) Gutiérrez, Gustavo(1971), *Teología de la liberación: Perspectivas*, Lima: CEP(Centro de Estudios y Publicaciones).

은 이러한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카엘 뢰비는 해방신학을 교회적 측면이나, 신학적 측면에만 바라보는 협소한 시각 때문에 ‘해방신학의 죽음’이라는 논리가 확산된다고 보았다. 뢰비에 따르면, 운동적 측면이 있는 해방신학은 단순히 가톨릭교회 영역에 속한 부속물이 아니며, 이미 신학이나 교회의 영역을 훨씬 벗어난 측면이 있다.

1980년대 중반이후 라틴아메리카는 외채위기 극복을 위해 워싱턴 컨센서스의 지침인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것은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확산하기 위해 제안된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부정적이다 못해 참혹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이 확산되었다. 2000년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 속에 이른바 ‘좌파열풍’이 불었다. 우고 차베스를 필두로 국가와 정치·사회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정권과 다양한 운동이 등장했다. 이 변화 뒤에는 해방신학에 영감을 받은 다양한 라틴아메리카 민중운동과 사회운동이 있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은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층의 소외라는 문제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의문시켰다. 해방신학은 일찍이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한 라틴아메리카 비판사상의 전통 속에 위치한다. 최근 발생한 세계적 차원의 금융위거나 자본주의 위기는 해방신학을 비롯한 비판사상을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신부의 『해방신학: 전망』(Teología de la liberación: Perspectivas)을 다시 읽고 재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책은 1971년 처음으로 페루에서 출간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오르비스 출판사에서 영어 번역판이 1973년 출간되면서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얼마 전 출판 4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세계 여러 곳에서 개최되었다.

이 글에서는 『해방신학: 전망』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주요한 비판은 무엇인지, 이 책이 갖는 의미와 현재성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2. 해방신학의 선구자

구스타보 구티에레스는 다채로운 학문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신학자이다. 그는 페루 리마에서 태어나 산 마르코스 국립대학교에서 5년간 의학을 전공했으나 가톨릭 성직자가 되기 위해 의사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 페루에서 기초적인 철학과 신학을 배운 후 유럽으로 건너가 벨기에 루벵 가톨릭대학교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했다. 그 후 프랑스의 리옹신학대학교와 로마의 그레고리안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페루로 돌아와 리마에 있는 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과 사회과학 교수로 근무했으며, 전국가톨릭학생연합의 지도신부로도 활동했다. 『해방신학』 출판 이후 국제적 명성을 얻은 구티에레스는 오랫동안 세계적인 신학 학술지 『콘실리움』(Concilium)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할 만큼 유명해졌다. 네델란드의 니메가(Nimega)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고, 1985년에는 당시까지 출판한 저서를 제출하여 리옹신학대학교에서 정식으로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구티에레스는 해방신학이란 이름에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점에서 선구자로 불린다. 이미 그는 1964년부터 ‘실천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서 신학’이란 주제를 고민했다. 라틴아메리카 민중이 열망하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은 발전보다는 해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방신학』에 실리게 될 핵심 내용과 기본 구조는 1968년 7월 페루 오니스사제단의 전국 모임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1971년 리마에서 처음 출판된 『해방신학』은 제3세계에서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 저서가 되었다. 해방신학에도 여러 경향과 노선이 있고, 강조점도 다르지만 구티에레스의 『해방신학』은 가장 유명하고, 신학자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되었다. 그 후 이 책은 전 세계 다양한 신학대학교와 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해방신학이 구스타보 구티에레스라는 한 개인의 천재적 능력에서 하루아침에 탄생한 신학사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해방신학은 분명히 전통신학이나 유럽의 진보신학과 구분되는 독창적 전망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해방신학 탄생에 영감을 준 다양한 신학과 사상이 존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등에서 발전한 유럽 진보신학이 중요한 한 축을 형성했다. 여기에는 정치신학, 세속화신학, 혁명신학, 발전신학, 노동신학, 희망의 신학, 그리고 신학자와 사회주의자 간의 진지한 대화 등이 포함된다. 구티에레스 신부는 『해방신학』에서 메츠, 앙리드 튀박, 이브 콩가르, 칼 라너, 쉴레벡스, 몰트만 등 당대 유럽 최고의 진보 신학자와 저서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구티에레스 뿐 아니라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자들이 보이는 특징이다. 중요한 해방신학자들은 모두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 자유롭고 진보적인 신학 학풍이 넘쳐나는 유럽의 대학에서 공부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이 지나치게 해방신학의 라틴아메리카적 독창성만을 강조하면서 유럽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다.

이와 더불어 1891년 교황 레오 13세가 발표한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이후에 발전한 가톨릭교회의 사회사상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교회의 사회론’, 혹은 ‘사회교리’로도 불리는데, 주로 교황과 주교의 회칙이나 교서를 통해 발표한 사회 현실에 대한 교회의 주

장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둔자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교회의 현대화를 추진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의 문헌이다. 이 공의회 문헌의 핵심을 요약한 사목현장(Gaudium et Spes)은 전통신학이 취했던 신학 성찰의 방식을 뒤집었다. 즉 교회의 전통, 기성 신학, 교회의 교도권에서 출발하지 않고 사회문화적 현실을 먼저 분석했다. 불안과 급격한 변화를 특징으로 한 현대 세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상황을 묘사하고, 이런 현실 앞에 교회가 무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숙고했다. 이런 방법론적 변화를 수용한 해방신학은 신학적 성찰의 토대로 라틴아메리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과학 방법론을 이용해 보다 엄격하게 현실을 분석했다.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가 발표한 『민족들의 발전 Populorum progressio』은 제3세계 굶주리는 민족의 처절한 호소에 응답해 약소민족에 대한 원조를 강조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국제경제체제의 불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과도한 이윤추구, 사유재산의 남용 등 자본주의 기본원칙이 내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26항). 이 문서는 제3세계 국가와 민족의 저발전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해방신학 형성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1968년 콜롬비아 메데인(Medellin)에서 개최된 제2차 라틴아메리카주교회의는 신학적으로 볼 때 해방신학과 같은 전망을 공유한 회의였다. 즉 라틴아메리카는 불의, 불평등, 가난, 억압 등 ‘구조화된 불의’가 만연한 대륙이고, 이러한 현실이 결국 ‘제도화된 폭력’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제도화된 폭력이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빼앗기고, 뜻대로 무슨 일을 시작할 수도 없고, 책임 있는 무슨 직업을 택할 수도 없으며, 문화적 현상이나 사회적 내지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마저 거부당하는 현실(평화, 16항)”을 의미한다.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절규 속에서 해방과 사회변혁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읽어낸 것이다. 특히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의 시각에서 성서를 새롭게 읽으며 교회가 민중과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것이 복음이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한 메시지라고 확신한 것이다. 제2차

라틴아메리카주교회의는 구티에레스의 『해방신학』의 탄생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동시에 구티에레스를 비롯한 해방신학자에게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에드워드 클리어리는 제2차 라틴아메리카주교회의를 해방신학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준 모임이자, 기초공동체 등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준 회의로 평가했다.

여기에 곁들여 강조해야 할 것은 구티에레스 신학을 형성한 또 다른 축이 라틴아메리카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티에레스는 라틴아메리카에 실현되어야 할 사회주의를 논하면서 페루 사회주의자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를 자주 언급했다. 마리아테기는 페루의 현실을 분석한 후 혁명의 주체로 노동자보다는 농민이나 원주민을 강조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가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을 떠나 어디에나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의 총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상황과 맥락을 강조했다. 구티에레스도 『해방신학』에서 만일 라틴아메리카에 사회주의가 들어선다면 타 지역 사회주의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에 맞는 ‘토착 사회주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밖에 원주민의 비참한 삶, 불의, 하느님의 현존과 부재 문제를 잘 묘사한 페루 소설가 호세 마리아 아르케다스도 구티에레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사실 『해방신학』은 구티에레스가 현사에서 밝혔듯이 아르케다스에게 바친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민중의 삶을 생생히 묘사한 아르케다스의 작품을 다른 저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구티에레스는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고통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는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해방이 단순히 정치, 경제, 사회적 종속을 극복하는 해방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새 인간’의 출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체게바라의 사상도 중요하게 언급했다. 파울로 프레이레의 ‘페даго지’와 ‘의식화’ 개념도 해방신학을 풍성하게 하는 데 이용되었다. ‘억압받는 자들의 교육학’과 의식화 과정은 인간

을 새로운 사회 건설에 참여하게 하고 비판적 각성을 촉구시킨다는 점에서 구티에레스의 사상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3. 신학의 해방: 신학하는 새로운 방법

『해방신학』의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신학에 대한 전통적 시각과 발전의 문제를 고찰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다루는데, 이 부분은 자신의 해방신학 전개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 역할을 하고 있다. 구티에레스 신학의 참신성과 독창성이 두드러진 부분은 7장, 9장, 11장 그리고 13장이다. 7장에서는 신도의 사회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문제를 해방운동과 연계해 다루고, 9장에서는 본격적인 해방신학을 전개하면서 구원과 해방의 문제를 성찰했다. 11장에서는 복음과 정치문제를 다루면서 유평피아를 매개로 신앙과 정치 연결시켰다. 13장은 가난의 문제를 성서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가난의 극복을 위해 연대와 저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티에레스 신학의 독창성은 몇 가지 테마와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구티에레스는 해방신학을 통해 무슨 새로운 주제나 내용을 추가하기보다 신학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33).²⁾ 구티에레스는 전통적 방식에 묶여있던 신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 자체의 해방, 즉 ‘신학의 해방’을 시도한 것이다. 기존 예지(叡智)로서의 신학과는 다른 전망에서 ‘신학하기’를 시도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진술에 의존하던 신학의 모습을 탈피했다. 『해방신학』이란 저서를 통해 과거를 경유해 변화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고자 한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1894~1930)

2) 여기서 언급하는 페이지는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해방신학』 (성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7을 기준으로 했음을 밝혀둔다.

구티에레스는 신학을 “말씀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교 신앙실천(Praxis)에 가하는 비판적 성찰”이라고 정의했다(31). 여기서 기존 신학과의 전망의 차이가 드러난다. 기존 ‘신학하기’는 성서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묵상, 혹은 성찰을 먼저 한 후 실천의 문제를 고민했다. 그러나 해방신학은 다른 길을 택했다. 기존신학이 해왔듯이 계시나 전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역사에서 도출해 낸 사실과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을 전개했다. 이런 우선순위와 전망의 변화는 방법론의 변화를 초래했다. 신학의 보조학문으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했던 철학 대신 사회과학을 중용했다.

구티에레스는 『해방신학』에서 신학의 핵심주제인 구원에 대해 다루면서 역사적 해방과정과의 상호관계를 성찰했다. 그러면서 먼저 가톨릭 문화에 남아있는 이원론적 시각과 단절할 것을 촉구했다. 희랍 사상의 영향으로 교회에 들어온 이원론은 세속적 현실과 영적 영역을 분리시켰다. 마치 두 개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도한 것이다. 그러나 구티에레스는 단지 하나의 현실, 하나의 역사만 존재할 뿐이라며 ‘역사의 단일성’을 강조했다. 유일한 세속의 역사에 하느님 구원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중요하게 부상했고, 그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느님을 성찰하는 것이 신학의 핵심 과제가 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자로 하여금 하느님이 선물로 주는 구원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어떻게 투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역사와 현실에 대한 강조는 성서 해석에 있어서도 변화를 초래했다. 구티에레스는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현실을 통해 성서를 읽고 해석했다. 그렇게 읽은 성서를 다시 현실에 대입시켰다. 성서 본문을 역사적 상황에서 먼저 이해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신자가 자신의 역사적 현실에서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성찰하도록 자극한 것이다. 성서 본문과 그것을 읽고 성찰하는 사람 사이에 긴장관계와 상호작용이 형성되

었다. 성서와 읽는 사람의 삶 사이에 해석학적 순환 고리가 형성될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출애굽의 해방사건과 민주화의 해방 사건이 동일한 경험 속에 체험되는 것이다.

구티에레스는 해방실천 과정과 구원의 상관성을 강조하지만 해방이 곧 구원과 동의어라고 말하지 않았다. 먼저 해방이란 출애굽 사건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성서의 핵심주제라고 강조하고, 해방 개념이 갖는 3가지 차원, 즉 정치적 해방, 역사를 통한 인간의 해방, 그리고 종교적 의미의 죄로부터 해방을 구별했다. 그리스도교의 구원 개념에는 정치적·역사적·종교적 구원을 포함하지만 구원과 해방이 동일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단지 그는 해방이라는 유일한 과정 속에 다양한 차원을 강조했을 뿐이다.

해방신학에서 새로운 것은 죄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사회적·집단적 차원에서도 조명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근본적으로 인간소외이고 하느님과 단절을 야기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 죄에서 해방을 포함하며 동시에 기아, 비참, 압제와 불의, 증오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해방은 하느님과 친교를 이어주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3가지 해방의 차원은 하느님이 선사하는 총체적 구원의 일부분을 이룬다. 따라서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노력은 곧 해방을 위한 노력이고, 이런 노력은 하느님 나라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된다. 그러나 구티에레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역사적, 정치적 해방 사건이 그리스도 왕국의 성장이며, 구원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왕국의 도래 ‘자체’는 아니며 구원의 ‘전부’도 아니다”고 분명히 언급했다(229). 구티에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해방의 차원을 포괄하는 활동을 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자임을 선포한다. 예수의 해방자적 측면은 후일 해방신학의 그리스도론을 전개한 레오나르도 보프와 혼 소브리노에 의해 더욱 발전되고 구체화되었다.

『해방신학』 13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가난은 구티에레스 해

방신학의 핵심 주제이다. 구티에레스는 모호한 가난의 개념을 구별하고 분명히 했다. 해방 개념처럼 가난의 3가지 차원을 구분했다. 인간의 품위를 위협하는 물질적 가난, 하느님 앞에 자기개방을 의미하는 영적 순박함으로서 가난, 저항과 연대의 투신으로서 가난이 그것이다(362-381). 물질적 결핍으로서 가난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회악이다. 성서의 예언자들이 고발한 것처럼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하면, 가난해진 사람들이기에 불의한 사회의 희생자가 된다. 이런 가난은 죄의 징표이며, 하느님 나라와 공존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영적 가난은 하느님 뜻 외에는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가난을 의미한다. 가난의 세 번째 의미는 착취당하며 가난해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당하는 착취와 빈곤을 의식하고 거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는 가난이다. 구티에레스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불의한 처지를 의식하고 개선하고자 할 때, 자선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닌 해방에 투신하는 세계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성서가 가르치는 하느님과 예수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방신학』에서 강조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란 용어는 제3차 라틴아메리카주교회의의 핵심 주제로 부상했다.

4. 논쟁과 비판을 넘어

구티에레스의 『해방신학』이 출판된 이후, 곧 이어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에서 다양한 신학적 성찰을 담은 책과 글이 소개되었다. 이 라틴아메리카 신학 모두가 해방신학이란 장르로 분류되었다. 해방신학에도 여러 노선과 경향이 존재하는데, 무차별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보수 신

학자들은 해방신학을 위험한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 많은 논란 속에서 몇 가지 쟁점이 부상했다. 먼저 “왜 종교의 영역에 해당되는 해방신학이 왜 폭력을 조장하고 정치에 참여하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구티에레스는 정치가 인간 삶과 현실을 포괄하는 총체적 영역이며 해방의 특권적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협의의 의미에서 정치는 권력관계와 그 분배, 권력 추구하고 수행과 관계되지만, 광의의 의미에서 정치는 인간의 품위와 사회정의를 촉진할 목적에서 공공선을 증진시키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영역이다. 그리스도교인은 이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하느님 나라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사명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참여는 권장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구티에레스는 성직자가 정치에 직접 참여해 공직을 맡는 것과 같은 정치 참여를 옹호한 것은 아니다. 그는 권력 장악이나 권력 투쟁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광의의 의미의 정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폭력을 옹호하지도 않았다.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교에 어긋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단지 인간의 기본권이 유린되고 국가의 공동선을 극도로 해치는, 명백한 폭군적 압제가 제도화되어 계속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처럼 ‘대응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제도화된 폭력을 묵과하고 순종하는 것은 양심에 대한 책임회피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구티에레스는 카밀로 토레스 신부의 무장투쟁 노선까지 옹호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왜 계급투쟁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의 방법론과 개념을 차용하는가?”라는 비판이다. 마르크스 사상이 실재에 대한 전체적인 세계관이어서 관찰과 분석에서 얻은 모든 자료들은 하나의 철학적 이념적 체계 안에 통합되고, 그 체계 자체가 그 자료들에 부여되는 의미와 중요성을 미리 결정해 버리는 특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계급투쟁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의 일부 개념만 채택해도 결국 그 이데올로기 전체를 받아들여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을 이용하면 결국 신앙의 진리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되며 무신론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구티에레스와 다른 해방신학자들은 억압하는 계급과 피억압 계급이 존재하며, 그들 사이 대립과 투쟁이 존재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급투쟁 자체를 절대화하고 보편화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라틴아메리카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런 갈등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구티에레스는 유물론과 무신론에 기초한 철학적 마르크스주의를 자신의 신학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도스 산토스, 팔레토, 카르도주 등이 주장한 종속이론이 근대화 이론과 발전주의의 환상을 깨뜨리는데 유용하다고 확신했다. 종속이론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먼저 주변국의 저발전은 발전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전 단계가 아니라 종속된 구조적 상황의 결과이며, 저발전은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발전함으로써 발생한 역사적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군더 프랭크를 비롯한 종속이론가들은 발전과 저발전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내부 모순의 필연적 결과이며 동시적 현상임을 강조했다. 구티에레스는 직접적으로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 유토피아, 혁명 개념을 신학 분석에 이용했다. 중세신학이 희랍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용한 것처럼 구티에레스는 사회과학을 신학 성찰의 주요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쟁점들이 주로 『해방신학』 출판 이후 등장한 초기 비판이라면, 아래 사항은 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비판으로 해방신학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해방신학』은 해방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백인중심, 유럽중심주의를 탈피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 모습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평신도 사도직, 가톨릭 액션, 기초공동체의 주요 성원이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해방과 관련된 신학적, 성서적 성찰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여성은 사회적·경제적 억압과 착취뿐 아니라 성적 지배

와 억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 있는 지적이었다. 구티에레스는 당시 여성의 상황이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게다가 근대적 자유와 관련해 민감한 부분인 성적 윤리, 이혼, 피임과 낙태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과 성, 임신 중절과 산아제한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전통주의적 입장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구티에레스는 인종적 차원에서 가장 억압받는 이 지역 원주민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농민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계급적 측면을 강조했다, 그 뒤에 숨겨진 인종 차별과 억압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종속이론과 불의한 외채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신학을 연결시켜 숙고하지는 않았다. 단지 자본주의 이념의 내포한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데 머물렀다. 구티에레스는 오히려 신앙과 정치문제에 집중했다. 그러나 정치와 함께 인간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경제를 신앙 차원에서 성찰하지는 못했다. 끝으로, 구티에레스의 『해방신학』은 인간의 착취와 지배, 정복으로 인해 병든 자연에 대한 치유를 주장하고 땅, 지구, 자연의 해방을 선포하지는 않았다. 생태계, 환경, 자연의 위기를 해방의 측면에서 성찰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5. 사회운동 속에 육화(肉化)된 고전

불의와 억압이 상존하는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제3세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는 구티에레스의 『해방신학』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해방신학이 구체적인 현실과 상황에 뿌리를 둔 신학임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해방신학』은 196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염두에 둔 신학이다. 그 시대의 절박한 요구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신학적 성찰을 시도한 사상이다. 앞에서 언급한 해방신학의 한계를 지적한 신학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등

장했으며, 모두 해방신학의 성찰이 멈춘 지점에서 출발한 신학이었다. 생태신학, 여성신학, 인디오신학, 경제신학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모두 새로운 현실에서 해방신학의 갱신과 변화를 추구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해방신학』이 이룩한 이론적 토대, 방법론, 전망의 틀을 수용해 새롭게 적용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후안 호세 타마요가 인정하듯이 “해방신학이 새 주제와 대상을 찾아 분화해갔다”는 표현은 적절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새로운 신학은 근본적으로 구티에레스의 사상에 크게 빚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해방신학은 영구불변하고, 비역사적이며, 위계적인 스킴라 신학을 탈피해서 역사적이며, 참여적인 실존적 신학 탄생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신학이 비신앙인을 향한 호교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구태의연한 틀에서 신학이 해방되어 훨씬 넓은 전망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구티에레스로 인해 신학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즉, 정치, 사회, 문화 주제를 신학 사유의 범주로 끌어들이는 공로가 있다. 무엇보다도 비인간적인 처지에 놓여있는 주변인들, 즉 가난한 사람들을 재발견하고 그들의 체험과 실천(Praxis)에서 출발하는 신학을 정립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과 실천의 관계, 즉 신앙과 정의를 위한 투쟁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구티에레스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반열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역동적 측면이 드러나는 실천에서 보면 해방신학의 기여가 더욱 명확해진다. 엔리케 두셀은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사회운동 중 약 80%가 해방신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스,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 멕시코의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ZLN)의 봉기, 볼리비아의 코카재배업자 운동, 에콰도르, 볼리비아, 과테말라 등지의 인디오 권리회복운동, 노동자농민운동, 반신자유주의운동, 대안세계화운동 등 대규모 민중운동이나 사회변혁 운동이 해방신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에보 모랄레스, 라파엘



1980년 피살된 로메로 주교를 추모하기 위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길거리 행진(2012년)

코레아, 룰라 다 실바, 우고 차베스, 다니엘 오르테가, 페르난도 루고 등 불의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라틴아메리카 수많은 전·현직 대통령과 좌파 정권이 해방신학 사상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방신학의 영향력은 현재진행형이다. 해방신학이 추상적 영역에 머무는 공허한 사상이 아니라 실천과 운동으로 전환되는 특성을 가진 지상에 뿌리를 둔 ‘육화(肉化)하는 고전’이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끝으로 구티에레스의 『해방신학』은 라틴아메리카 역사 속에서 중요한 계기마다 등장했던 통합과 해방의 유토피아 사상 전통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나 소련의 해체와 같은 외부 변수로 몰락할 단순한 사상이 아니다. 해방신학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라틴아메리카인의 유토피아 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양극화, 가난, 불의, 사회적 배제가 증가했다. 해방신학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인 가

난, 불의, 저발전의 상황이 계속되는 한 해방신학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가난한 사람들의 절규가 계속되고 사회적으로 배제를 경험하는 인간들이 있는 한, 그리고 그들이 사회변혁과 해방을 갈구하고, 희망과 유토피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구티에레스의 『해방신학』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메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rmando Bandera, *La Iglesia ante el proceso de liberación*, Madrid: BAC, 1975.
- Christian Smith, *La teología de la liberación. Radicalismo religioso y compromiso social*, Barcelona: Paidós, 1994.
- Leonardo Boff, *Jesus Christ Liberator. A Critical Christology for Our Time*, New York: Orbis Books, 1978.
- Michael Lowy, *Guerra de dioses. Religión y política en América Latina*, México: Siglo XXI, 1999. (미카엘 뢰비, 『신들의 전쟁: 라틴아메리카의 종교와 정치』, 김향섭 역, 서울: 그린비, 2012)
- Phillip Berryman, *Teología de la liberación*, México: Siglo XXI, 1987.

조영현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